

# 「折花奇談」小攷

李 守 眞

##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作者와 讀者  |
| 2. 形態的 特徵 및<br>創作年代 | 4. 作品 梗概   |
| 1) 形態的 特徵           | 5. 作者의 小說觀 |
| 2) 創作年代             | 6. 內容 檢討   |
|                     | 7. 맺음말     |

## 1. 머리말

조선조 후·말기에 있어서 문화향유층의 확대현상은 고소설 영역에도 변화의 여파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18~19세기 中·庶人層의 대두에 따른 양반의식의 보편화는 필연적으로 文人世界의 폭을 확대 시켰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소설의 보편적 양태는 권선징악적 전통윤리의식의 확인이었다.<sup>1)</sup> 이러한 경향은 조선조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가치관이 守舊的 上層身分에 의해 사회전반에 온존하는 한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이질적인 부류인 中·庶人 계층의 상승은 외면적인 양태에 있어서 뿐 아니라 내면적인 의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질서를 변형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일부 고소설 가운데에서 그런 인습적 제약을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작품도 그 한 예일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한문소설 「折花奇談」은 그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끌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염정소설이라 할 「折花奇談」은 구성이나 주제면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여타 고소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작자는 작품의 주인공을 기혼의 남녀로 설정하여 두 사람의 애정문제를 심적 갈등을 중심으로 묘사

1)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文社, 1964 및 鄭鉉東 『古代小說論』, 養雪出版社, 1966 참조.

하고 있다.

작품의 체제를 살펴보면 評者의 評이 스토리 전개와 앞부분에 나타난다. 評者는 소설의 내용을 미리 축약해서 소개하며 작품에 관한 評者 나름의 느낌을 서술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옹호하기도 한다.

한편 「折花奇談」에는 이외에 評者의 〈序〉〈追序〉 및 작자의 〈自序〉〈追書〉가 卷首 卷末에 실려 있어서 작자 또는 작자를 중심으로 하는 同好人群의 문학적 성향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折花奇談」의 특징들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약간의 내용 분석을 가하기로 한다.

## 2. 形態의 特徵 및 創作年代

### 1) 形態의 特徵

「折花奇談」에 대해서는 大谷森繁이 戲作小說로서의 성격 규정과 함께 그 존재를 소개한 바 있다.<sup>2)</sup> 아직 異本の 보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唯一本인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 책은 현재 일본 동경소재의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를 복사하여 이용한 관계로 지질이나 책의 크기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겉표지에 「折花奇談單」이란 표제지가 붙어있으며 「Ⅶ 4 2. 5」라는 분류표시를 한 同 文庫側의 別紙가 하단에 붙여져 있다.

전체 면수는 표지를 제외하고 37張 74面이며 每面 10行, 每行 18字의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내용은 약 13,000字 정도이다. 行間의 패선, 匡郭 및 版心등은 목판으로 인쇄되었다. 版心 上端에 표제가, 下端에 장수가 기재되어 있다. 서체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단정한 해서체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인의 필체로 이루어져있다.

책의 編次는 다음과 같다.

折花奇談序(南華散人識)

石泉主人自序

第一回

李家嫗媒結朱陳緣

2) 大谷森繁, 『朝鮮後期小說讀者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5, p. 100.

3) 金起東은 「鍾玉傳研究」(『論文集』14, 東國大, 1975, p. 49)에서 해외에 있는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였다고 8편의 작품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折花奇談」이 혹시 이 작품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方氏鸞打破陽臺夢

「南華子曰…」의 評

本文

第二回

雙鸞打破兩遭夢

一鸞媒得三杯酒

「南華子曰…」의 評

本文

第三回

老李能接早梅

媒鸞還作魔鬼

「南華子曰…」의 評

本文

追序(南華散人于帶存堂書室)

追書(嘉慶十四年 己巳 端陽後一日 石泉主人于薰陶坊精舍)

위에서 보듯이 이 작품은 3회로 구성된 한문 장회소설이며 각 회마다 제목이 붙여져있다. 그리고 각 회에는 <南華子曰…>로 시작하는 작자의 친구 南華子の 評이 본문에 앞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각 회가 끝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끝난다든지 장면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다. 작자는 어떤 사건을 진행시키다가 극적인 순간에 이르러 갑자기 중단 시키고 다음 회로 넘김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키는 기법을 쓰고 있다. 즉 제 1 회의 말미는 우여곡절 끝에 만난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심정을 토로하고 막 정사를 벌이려는 찰나 밖에서 누군가 여주인공을 찾는 소리가 난다. 그리고는 ‘佳期가 어떠했는지 모르겠는가 또 아래글을 보고 이해하시오’<sup>4)</sup>로 끝난다. 또 제 2 회에서는 서로 만나기로 한 전 날밤 남주인공이 밤잠을 못이루고 기다려 새벽같이 달려가니 여주인공은 보이지 않고 그 일을 주선해주는 老嫗가 ‘어젯밤 불이 났읍니다……이 老身이 상세히 고하겠읍니다’<sup>5)</sup>하고는 ‘불난일에 무슨 연고가 있는지 모르니 아래글을 보고 이해하시오’<sup>6)</sup>하고 3회로 넘어간다.

4) 「不知佳期如何 且看下文分解」(제 12 장 후면).

5) 「昨夜火事出矣……老身當詳告矣」(제 24 장 후면).

6) 「不知火事 有甚緣故 且看下文分解」(제 24 장 후면).

또한 스토리의 전개 중에 詩와 詞 8편이 남주인공의 심회를 표출하는 형식으로 실려있다.

텍스트는 좀이 먹어 자획의 판독이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으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 2) 創作年代

「折花奇談」 말미에는

嘉慶十四年己巳端陽後一日

石泉主人追書于薰陶坊

精舍

라는 追書가 있다. 嘉慶十四年은 서기 1809년 즉 純祖 9년 5월 6일(陰曆)이다. 追書는 이 책의 최종 완성을 뜻하므로 追書의 年月日을 곧 創作年月日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1809년은 院堂이 「西廂記」를 번역한 해<sup>7)</sup>보다 2년 앞선 해이다. 이러한 점은 이 작품 말미의 南華散人이 쓴 追序에 '사건이 심히 간절하고 지극하여 서상실과 서로 표리를 이룬다'<sup>8)</sup>는 구절과 함께 당시대인들의 소위 패설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이 작품은 같은 한문소설인 「鍾玉傳」(1838), 「烏有蘭傳」(1858) 보다 한세대쯤 앞선 19세기 초의 작품이다.

## 3. 作者와 讀者

「折花奇談」에는 石泉主人이 쓴

折花奇談은 곧 내가 젊은 시절에 閱歷한 것이다. 그 사실을 기술하였는데 閑中の 재미로 읽을거리에 지나지 않으나 내용이 대부분 황당하여 내 벗 南華子에게 맡겼더니 南華子가 문장을 다듬고 차례를 지으며 또 따라서는 윤색했다.<sup>9)</sup>

라는 구절이 있다. 또 南華散人도 序에서

7) 李家源, 『李家源全集』 22, 正音社, 1986, p. 4.

8) 「事甚切至 與西廂說相表裏」(제 36 장 후면 ~ 제 37 장 전면).

9) 「折花奇談 即余丁年所由閱歷者也 敘其事 記其實 不過閑中觀覽之資 而文不聯脈 事多間空 質諸吾友南華子 南華子改敘篇次 又從以潤色之」(제 3 장 후면)

折花之說是 곧 내 벗李某의 實錄이다<sup>10)</sup>

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의 작자는 南華散人과 교우관계에 있는 石泉主人李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序를 쓴 評者 南華散人 역시 작품의 문장 표현이나 구성을 다듬는 등 창작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號만으로는 정확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의 말미에 작자가 追書한 장소가 <薰陶坊精舍>라고 되어 있는 점과 본문의 문체적 특징인 白話文 添入 사실을 연결시켜 보면 그들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薰陶坊은 漢陽 五部の 南部에 속하는 坊名이다. 薰陶坊의 위치는 木覓山 아래로서, 官衙가 밀집했던 곳이며 특히 譯官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東國輿地備攷』 漢城府篇의 屬司五部 南部의 薰陶坊條에 역관 洪純彥의 報恩緞에 얽힌 일화가 실려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 소설의 문체를 살펴보면 白話文體가 도처에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를 가리키는 지시사 <其>는 단 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那>로 되어 있다. 이것은 白話文을 상용하는 부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文章體에서도

兄 且胡爲乎 白地裏做得何件事耶 (제 17 장 후면)

忽聞窓外 有叩門之聲 暗地裏猶卞嬌聲好音 (제 23 장 후면)

과 같은 白話文의 혼용이 눈에 띄는데 이로 미루어 石泉主人李某는 중국과 관련이 깊은 역관류가 아니었던가 한다. 또 하나 소설의 내용에서도 작자의 신분을 추정할 만한 부분이 보이는데 제 2 회에서 남주인공 李生이 여주인공 舜梅에게 銀粧·玉佩를 주면서

此乃北胡之第一肆中物也 (제 17 장 후면)

라고 말한다. <北胡의 첫 점포>에서 물건을 샀다면 그는 使行에 참가하는 譯官일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自序에 따르면 「折花奇談」은 작자 石泉主人이 젊었을 때의 경험을 소재로 하여 창작하였고 여기에 작자의 벗인 南華子도 문장을 다듬고 차례를 정하며 潤色을 가하는 등<sup>11)</sup> 작품의 창작에 깊이 간여했음을 알 수 있다.

10) 「折花之說 即吾友李某之實錄」(제 1 장 후면)

11) 註) 9. 참조.

南華子(南華子)는 곧 이 소설의 첫 독자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이 소설의 작자 石泉主人은 중인 역관층이었을 것이며 「折花奇談」은 그 동호인들 사이에서 돌려지며 읽혔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 4. 作品梗概

이 작품은 3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회의 앞부분은 南華子가 자기의 소감을 곁들여 그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어서 실제 스토리가 전개된다. 작품경개는 南華子의 언급은 제외하고 스토리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제 1 회

壬子년 간에 李生이란 자가 帽洞에 僑居했다. 그는 풍채가 남다르고 詩文을 이해하는 재주꾼인데 이웃 閩閩 李家에 식객으로 지냈다. 그 집에 돌우물 하나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물 앞에는 동네여인들이 모였다. 그중에 舜梅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방년 17세의 절세 미인으로, 方氏에게 출가한 여인이다.

李生이 그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정을 가누지 못했지만 陽台之夢을 이룰 수 없어 다만 그리워할 뿐이었다. 하루는 蒼頭가 대나무 그림이 새겨진 은노리개를 가지고 李生을 찾아와서 方氏婢의 물건인데 전당잡히겠다고 한다. 李生은 이 물건으로 인해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받아 놓는다. 어느 날 舜梅가 우물가에 왔다. 李生은 정을 가눌길 없어 말로 은근히 수작을 걸며 은패물을 내보여 누구의 것인가 묻는다. 舜梅가 놀라서 자기가 얘기하며 즐기던 물건으로 일전에 小奴에게 전당잡혔었는데 어찌해서 상공의 손에 들어갔는가 묻는다. 李生이 웃으며 “네 물건이면 마땅히 돌려주겠다”고 하자 舜梅는 돈 한 푼 없이 어찌 원주인에게 돌려주느냐고 한다. 李生은 “은패 하나로 약속하지 않고도 이미 芳緣이 맺어졌다. 인생은 물 속에 잠겨 있는 풀 위의 이슬과 같고 청춘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으며 즐거운 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 하룻밤 약속을 인색해 하지 말고 三生の 소원을 이루자”고 한다. 梅는 미소를 머금고 답하지 않은 채 가버린다.

고민하며 지내던 李生이 하루는 李家에서 술을 마시는데 한 老嫗가 와서 끼어든다. 그 老嫗는 구변이 좋고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 李生은 그 老嫗에게 方氏의 아내를 아느냐 묻고 하룻밤 인

연을 맺도록 주선해주면 후히 사례하겠노라고 제의한다. 老嫗는 그 여자는 절개가 곧은 사람이라 설득하기 어렵다고 거절한다. 李生이 씩씩히 돌아와 홀로 난간에 기대어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보니 舜梅가 우물가로 오는 것이었다. 李生이 기뻐서 은근히 말을 건네니 舜梅는 웃으며 대답 않고 가버린다. 李生은 시를 읊어 마음을 달래고 뜻을 이루지 못함을 탄식한다.

아침이 되어 老嫗가 왔다. 李生은 어저께 한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는가 물으니 老嫗는 이 일에 세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梅女의 천성이 깨끗하여 몸은 비록 천하나 마음이 귀해 뜻을 뺏을 수 없고, 둘째는 鸞이라는 이모가 있어서 舜梅의 일을 방해하며, 셋째는 福蓮이라는 계집종이 남의 일을 엿보고 말을 잘 퍼뜨려서 발각되면 해를 입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鸞과 蓮의 입을 막으면 가능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약간의 돈을 주면 李生을 위해 애써보겠노라고 하여 李生은 돈을 건넨다.

며칠이 지나 다시 온 老嫗가 梅의 은패물이 전당잡혀 있는가 묻고 梅가 돈을 치루고 그것을 되찾겠다더라고 전한다. 李生이 그 패물을 매개로 하여 梅를 만날 뜻을 비치자 老嫗가 알겠다고 돌아간다. 그러나 며칠 뒤 蒼頭가 와서 은패물을 찾아가버린다. 李生이 낙담해서 밤에 촛불을 켜고 혼자 애태우며 의자에 기대어 있는데 갑자기 어여쁜 여인이 들어와서 “첩은 미천한 몸인데 낭군은 어찌하여 고민합니까?”한다. 李生이 기뻐서 손을 잡고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고 원앙금침을 뵈는데 불려도 응답이 없어 놀라 찾으니 꿈이다.

이후 李生은 그 여인만 생각한다. 십여일 후 老嫗가 다시 와서 자기를 거치지 않고 은패물을 돌려주는 바람에 일이 어긋났었다면서 梅가 급히 쓸 데가 있어 다시 전당잡혀 달라고 하더라도 은패물을 내어 놓는다. 李生이 老嫗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돈을 빌고 패물을 남겨 놓았으니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건다.

며칠 뒤 老嫗가 자기가 설득하여 일이 잘되어 某日 저녁에 모실테니 기다리라고 전한다. 李生이 애타게 기다리다가 하루는 일이 있어서 성 밖으로 나가 하룻밤을 묵고 돌아오는 길에 老嫗를 만났더니 어제 저녁 梅가 틈을 내어 찾아와 자기와 함께 기다리다가 헛걸음만 하고 갔다며 못내 애석해한다. 李生은 이 말을 듣고 황홀해 하며 다시 기약하도록 애써 달라고 한다.

계절이 바뀌어 10월 어느날 老嫗가 와서 梅가 자기집에 와서 기다린다고 전한다. 李生은 기뻐하며 老嫗의 집으로 가서 梅를 만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니 梅는 “낭군은 아내가 있고 천첩 또한 남편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함이 간절해도 낭군이 경원할 것 같아 교태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둘은 기뻐하며 老嫗가 준비한 주찬을 즐기다가 李生이 은폐물로 인해 하룻밤의 인연이 이루어 졌으니 은폐물을 幣物로 삼자고 한다. 몇 잔의 술을 더 즐긴 뒤 한 조각 꿈이 바로 경각에 있는데 감짜기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梅를 찾는다.

## 제 2 회

문에서 부르는 사람은 干鸞이었다. 舜梅가 놀라서 나가니 干鸞은 남편이 집에 와서 찾는다며 꾸짖는다. 舜梅는 老嫗가 떡을 했길래 먹으러 온 참이라고 변명하면서 서둘러 돌아갔다. 老嫗는 鸞婢가 간교하여 만약 梅의 남편을 부추겨 수색하러 오면 화를 입을 것이니 빨리 숨으라고 한다. 李生은 얼이 반쯤 나가 있다가 老嫗의 말에 더욱 놀라 집으로 돌아온다.

눈을 감으면 梅가 문득 눈 앞에 있어서 절로 한 숨이 나올 지경으로 며칠을 보내고 生이 老嫗를 찾아가니 老嫗는 지난번 일은 매우 아슬아슬했다며 梅가 다시 한 번 만나기를 원하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다. 老嫗가 梅를 데려오니 梅는 저번에는 말을 잘 둘러대어 무사했다고 하면서 이 달 초하룻날이 제삿날이므로 그 날 저녁 틈을 내어 오겠다고 하고 간다.

李生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老嫗를 찾아가니 老嫗가 梅의 남편이 술에 취해 미친듯이 날뛰어 오늘 저녁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돌아온다. 며칠 뒤 李生이 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老嫗가 지나가며 눈짓을 한다. 李生이 알아채고 곧 老嫗家에 가니 梅女가 기다리고 있다. 李生은 “네가 장부의 애간장을 다 베어 놓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탄식한다. 舜梅는 “첩이 비록 천류이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군의 사모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 한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낭군의 사랑을 받은 뒤 오직 낭군을 섬기는 정성만 가지게 되었으니, 지금 삶이 경박한 노리개 신세이나 巾櫛之奉이 될 것을 기약합니다”고 한다. 生이 희비가 교차하여 가까이 가서 달래는데 감짜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자 舜梅는 놀라서 손을 떨치고 나간다. 동생 舜德이 찾아와서 어찌려고 쓸데없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느냐고 나무라자 梅는 한가롭고 부료하여 우연히 와서 담소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가버린다. 生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멀리 가기를 기다려 집으로 돌아온다.

계절이 바뀌어 除夕에 老嫗를 찾아간 李生은 이 해도 다 갔는데 佳期가 어그러져 만가지 일이 생각나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다면서 지금 梅에게 물건 하나를 주려하니 알리라고 한다. 老嫗가 梅를 데리고 오자 李生은 銀粧·玉佩를 주면서 “은에서는 깨끗함을 취하고 옥에서는 매끄러움을 취하여 아침 저녁으로 보며 이 마음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한다. 梅女는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고마와 하며 “새 해 새 정은 마땅히 정해진 기약이 있으니 낭군께서는 근심하지 마시오”라는 인삿말을 하고 갔다. 李生은 老嫗를 시켜 다시 다짐을 받고 약속된 보름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보름날은 마침 임금이 남쪽 華城에 행차했다가 돌아오는 날이라 경비가 삼엄했다. 李生은 혹시 일이 여의치 못할까 염려하여 老嫗를 찾아가니 老嫗는 이날의 약속이 어그러짐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한다. 李生은 약속을 고치자고 하나 老嫗가 女는 마음대로 나들이를 할 수 없고 또 성갈 급한 남편이 옆을 떠나지 않는 형편이라고 한다. 李生이 못내 서운해 하자 老嫗는 내달 초엿새가 冷節이라서 鸞·蓮 두 여자는 기일에 앞서 성묘하러 올라가고 梅만 남아 집을 지킬 것이니 그 때 잘 되도록 하라고 위로한다.

李生이 단지 냉절 돌아오기만 기다려 老嫗家에 가니 老嫗는 여러날 아파서 梅의 소식을 묻지 못하였다고 한다. 生은 할 수 없이 老嫗를 위로하고 한탄하며 돌아온다. 십여일 뒤 다시 찾아가니 老嫗는 자신의 병은 낫았으나 梅 또한 여러날 병으로 누워 지내니 상공이 치료비를 주면 찾아보겠다고 하므로 약간의 돈을 건넨다. 이 후 누차 老嫗를 찾아갔으나 그 때마다 만나지 못해 달포가 지난 뒤에 다시 찾아가니 老嫗는 대단히 노해 있었다. 까닭을 물으니 李生이 자기 집에 자주 왔기 때문에 소문이 나고 鸞·蓮에게도 의심을 샀다고 하며 오직 李生의 은근한 정 때문에 서너번 만나도록 주선했는데도 이 지경이 되었으니 天緣이 없다며 다시는 梅 이야기는 말라고 한다. 李生이 설득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 그냥 돌아온다.

삼월 늦봄의 보름, 꽃 시절을 맞아 임금은 신하들에게 禁苑에서 꽃구경 버들구경을 시켰고 성 안의 女들도 모두 구경나왔다. 李生은 두 세 사람과 더불어 흥이 나서 술을 마시니 누각의 난간에 월색이 그림같은데 梅를 잊기 어려워 老嫗를 찾아간다. 老嫗는 놀라서 늦은 밤에 온 것을 타하지만 李生은 “다시 한 번 착한 마음을 내어서 죽은 목숨을 건져 달라”고

한다. 老嫗은 자신이 근자에 귀가 먹어 큰 소리 가는 소리 모두 들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해보라고 하여 다섯 번이나 말하게 한 뒤에야 알아 듣고는 성의가 가상하다며 계책을 제시한다. 즉 그 이모 干鸞이 술을 좋아하니 같이 술을 마시며 잘 응접하면 틀림 없이 은혜에 감격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 원하는 바를 꾀하자는 것이다.

다음날 老嫗의 집에 가서 干鸞과 술을 마시니 干鸞이 갈수록 교태를 띄고 야양을 떨었다. 다음날 老嫗은 어저께 干鸞의 마음이 상공에게만 있었으니 먼저 그를 꾀하라고 한다. 그러나 李生은 한꺼번에 두 사람을 도모하는 것은 금수도 아니하는 바라며 화를 낸다. 老嫗은 농담이라며 자기가 干鸞을 거짓으로 꾀어 상공이 干鸞을 갈구한다고 말해 놓았으니 앞으로 干鸞을 만나게 되면 중도에서 기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 장차 계책을 실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한다.

하루는 老嫗가 내일 아침에 梅가 와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일러준다. 밤잠을 못이루며 詞를 지어 읊고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老嫗家로 가니 아직 梅는 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기다린 뒤에야 梅가 나타나 하늘이 이미 밝아서 남이 엿들을까 두려우므로 내일 닭이 처음 울 때에 은밀히 다시 오겠다고 가버린다. 李生이 오늘처럼 밤도록은 말라고 당부한다.

이튿날 닭이 울고 시각이 되어 老嫗家에 가니 老嫗은 어젯밤에 불이 났는데 그 이야기를 상세히 하겠다고 한다.

### 제 3 회

老嫗은 어제의 불은 부엌에서 失火한 것인데 온 마을이 도와서 겨우 것이며 梅도 도우러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마 피곤도 해서 다시 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李生이 탄식하며 돌아왔다가 며칠이 지나 老嫗家에 찾아가니 기다리는 사람은 梅가 아니라 干鸞이었다. 같이 몇 잔 술을 들고는 자리를 뜨니 鸞도 화를 내고 돌아갔다.

봄이 가고 4월초가 되어 老嫗家에 가니 곧 이어 梅가 와서 말하기를 전에 약속을 깨뜨린 것은 불때문이라며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 李生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梅는 “낭군이 첩을 비록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나 오히려 첩이 그리워하는 것 만은 못합니다”고 하며 새벽 닭이 울 때에 나올 일이 있어 틈을 내겠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李生이 저녁을 끝내고 술을 들며 기다리는데 이윽고 새벽 닭이 세 번 울고 통행을 허가하는 북소리가 다섯 번 들려도 아무 소식이 없다. 老嫗에게 나

가서 살펴보라고 했더니 “그 집 문 안에서 경계하는 투의 기침 소리가 들리니 반드시 鸞·蓮이 梅가 나가는 것을 감시하는 것 같고 뜰안이 마치 싸우는 것 같으니 梅가 뜻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고 한다.

날이 완전히 밝자 李生은 “대장부가 한 여자를 그리워하겠는가, 오늘 이후 맹세코 梅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서 탄식하거나 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돌아온다. 며칠 뒤 老嫗가 찾아온다. 李生이 화가 나서 왜 왔느냐 물으니 老嫗는 자기에게 화낼 일이 아니라고 하며 방금 梅女를 만났는데 대단히 화를 내어 相公을 원망하더라며 자기 몰래 李生이 梅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분하고 억울하단다. 李生이 놀라서 老嫗家에서 헤어질 뒤에 얼굴도 목소리도 접하지 못했는데 梅女가 원망하고 비방한다니 뜻밖이라고 하자 老嫗가 화를 풀고 좀 전의 말은 농담이라며, 방금 梅女를 만났는데 어제 저녁 약속을 이긴 것과 형편이 부득이하였음을 사과하고는 오늘 저녁에 李生이 머무는 집에 가겠다고 한다.

李生은 書案을 치우고 촛불을 밝혀 기다리다 드디어 그리던 梅女를 맞는다. 梅女는 자신의 賦命이 기구하여 남편이 착하지 못하고 명색이 부부라지만 정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李生을 만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르고자 하나 자유로운 몸이 아님을 호소하면서, 못 이룬 소원은 지하에서나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 이웃집 닭이 울고 동창이 약간 밝아오자 여름밤이 짧음을 한탄하고 작별하며 李生이 나중의 기약을 물으니 梅는 예정할 수 없다고 한다.

사월 초파일이 되어 온 마을이 등불을 밝히고 즐기니 李生이 觀燈하며 거리를 거닐다가 梅女 생각이 나서 老嫗를 찾아오니 방금 梅女가 다녀갔는데 李生이 올 줄 모르고 기다리지 않고 갔다고 한다. 일흔 뒤에 李生은 다시 老嫗를 찾아가 한 번 더 梅를 만나도록 해보라고 한다. 老嫗는 李生을 방 안에서 기다리게 하고 밖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나간다. 곧 梅가 오나 방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므로 李生이 방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 李生은 梅가 집안에 들어 온 것을 알고 老嫗가 자물쇠를 열어 주기를 기다린다. 고요히 기척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老嫗는 문을 열고 들어와 梅가 왔는데 어디에 있는가 묻는다. 李生이 들어온 것은 아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자 老嫗가 나가 살펴 보지만 종적이 없다.

그런데 마침 于鸞이 이 집 중문 안에 숨어서 모든 동정을 살펴 梅女가 몸을 피하는 것까지 알게 된다. 于鸞은 노기를 띠고 老嫗에게 不義之事라고 말하겠다고 내어 들며 李生도 나무란다. 李生은 梅와 친하게 지낸지가

여러해이며 저번에 干鸞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은 梅와의 情事를 모른척 눈감아 달라는 향응이었음을 말한다. 이 후 干鸞은 梅女를 엄히 지켜 李生과 만날 수 없게 한다. 하루는 老嫗가 李生을 찾아와 방금 梅를 만났는데 鸞이 엿보고 살피는 것이 날로 심해 잠시도 벗어날 틈이 없어 백년가약이 뜬 구름, 흐르는 물이 되어버렸다고 전한다. 李生 또한 어쩔 수 없어 영원히 결별할 수 밖에 없음을 알고 그 심정을 한 편의 詞로 토로한다.

### 5. 作者의 小說觀

이 작품에는 〈序〉·〈自序〉·〈追序〉가 있어 작자와 그 동호인들의 소설관을 엿볼 수 있다. 평자 南華子의 追序에는 당시 패설의 창작 태도에 관한 구절이 있다.

패설은 대개(문장이) 화려함을 숭상한다. 화려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의(감. 성을) 눌러버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문득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즐거움으로 삼음으로써(시간적으로) 옛 것을 좋아하고 지금 것을 싫어하며(공간적으로) 먼곳의 것을 좋아하고 가까운곳의 것을 싫어하니 우리나라 사람의 병이 아니라 곧 친하가 함께하는 병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패설을 짓는 데 반드시 중국의 소재를 쓰면서 우리나라에는 불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대개 지금의 패설이(공간적으로) 우리나라 것이요(시간적으로) 지금 것인즉 우리나라에는 불만한 것이 없으니 지금 더 무엇을 논하겠는가 그러나 사건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여 西廂說과 표리를 이룬다……그 뜻의 극진함과 정의 깊음이 이와 같으니 가히 불만하다.<sup>12)</sup>

이처럼 당시에는

첫째 패설은 문장이 화려해야 한다.

둘째 패설은 소재는 시간적으로 당대로부터 많이 소급된 것이어야 하며 공간적으로는 당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것이어야 한다.

는 것이 패설 창작의 일반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평자는 작자가 이러한 원칙을 극복하여 시간적으로는 당시대의 것을, 공간적으로는 당시 조선의

12) 『裨說 蓋尙華 非華 勝東人之情 固然 輒以未聞睹爲快 好古非今 樂遠厭近 非東人之病 乃天下同病 東人著說 必用夏 必曰 東無觀焉 蓋今說 東且今 則東無觀 今尤何論 然事甚切至 與西廂說表裏……然意極而情篤若足 可觀焉』(제 36 장 후면 ~ 제 37 장 전면)

것을 소재로 했으면서도 불만한 작품을 썼다는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이 ① 사건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다. ② 뜻이 극진하고 정이 깊다는 것을 중시 하였다. 사건이 간절하고 지극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건 전개에 있어서 무리가 없이 잘 짜여졌다는 것이며, 뜻이 극진하고 정이 깊다는 것은 그 표현이 절실하고 사실적이어서 독자가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南華子는 이미 소설의 구성이나 문장의 묘사·표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南華子는

전편이 모두 장이 끊어지며 애가 타고 가슴이 마르는 구절이라.<sup>13)</sup>

고 하였으며 작자 역시

그 마음 썩여 사모하며 애를 끊어도 잇기 어려운 정은 구절구절 살아움직이고 글자마다 맺혔으니 혹은 책을 덮고 크게 한 숨 설곳 있고 혹은 마음이 가볍고 눈이 시린 구절이 있다.<sup>14)</sup>

고 표현의 절실함을 내세우고 있다. 즉 이들은 단순히 <읽을거리>라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었고, 작품의 짜임새나 문장의 표현기교에 역점을 두고 소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작자와 평자가 소설에 대해 이미 상당히 주체적이며 진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작자는 기이한 소재를 채택하여 허황하고 비현실적인 흥미의 세계를 그리기 보다는 시대를 같이하며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조선 남녀의 애정에 얽힌 갈등을 극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아직까지는 隱諱, 歪曲되어야만 하였던 솔직한 인간 욕망의 표현을 과감히 시도하였다.<sup>15)</sup> 그리고 평자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구성이나 문장의 표현에 역점을 두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패설의 문장이 화려해야 하는 이유를 조선사람의 정을 묘사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sup>16)</sup> 즉 패설이 조선사람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이 화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13) 「而滿篇都是 眼穿腸斷 心灰意涸之句」〈序〉(제2장 전면)

14) 「而其腐心相思 斷腸難忘之情 句句活動 字字耿結 或有掩卷太息之處 或有心碎眼酸之句」〈自序〉(제3장 후편~제4장 전면)

15)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에 살았던 李錕은 그의 「俚諺引」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金興圭, 『韓國文學의 理解』(민음사, 1986) pp. 171~172 참조.

16) 註) 12참조.

이처럼 소설에서 감정묘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상당히 근대적이며 보다 문예적인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南華子の〈追序〉에서는 또한 껌설에 대한 공개적인 찬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그러나 사건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여 西廂說과 표리를 이룬다……뜻이 극진하고 정이 깊으니 가히 불만하다'고 하여 이 「折花奇談」을 공공연히 「西廂記」와 비교하여 칭찬하고 있다. 「西廂記」에 필적할만한 작품이라는 지적은 소설에 대한 士類들의 종전의 태도<sup>17)</sup>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이 나온 때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秋史 金正喜는 「西廂記」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西廂記」는 세속에서 이르는 바 才子의 奇書이다. 그러나 科白과 牌詞는 사람들이 해득하지 못해 그 말을 모르니 어찌 그 뜻을 알겠는가 내 일찍부터 이를 딱하게 여겨 널리 註釋된 여러책을 수집하여 그 번거로운 것은 잘라내고 중요한 것을 뽑아 正音으로써 물이름 한 언후에 辭理가 條暢하여 한 번 낭독하면 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奇哉를 부르지 않는 이가 없었음뿐더러 비록 저 시골사람들과 장사치에 이르기까지도 그 소리를 듣자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없었다. 이에 사람마다 「西廂記」가 絶世의 묘한 문장임을 알게되었다.<sup>18)</sup>

고하여 역시 그 문장의 절묘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친구의 질문에 대해

대저 하늘에는 일월과 봉우가 있고, 땅에는 오곡과 초목이 있고, 사람에게는 公卿과 農工이 있으며, 글에는 經·史·子·集이 있으니, 이들은 실로 民生·日用에 關할 수 없는 것이다.……글에서의 綺詞나 艶曲이 비록 쓸 곳이 없다고 하지만 천지 간에 이 한 가지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나는 이 「西廂記」를 한편으로 기이한 구름이나 환상적인 안개로 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름난 꽃이나 이상한 불로도 치니 그럴수 있지 않겠는가.<sup>19)</sup>

17) 李家源, 「英·正代 文壇에서의 對小說의 態度」(『연대 80주년 기념논문집』 인문과학편, 1965) pp. 325~330 참조.

18) 「西廂記 世所謂 才子奇書也 然科白牌詞 人爲未曉 不得其辭 焉得其意 余嘗病之 廣授註釋諸本 刪其繁 而撮其要 乃以訓民正音及解 然後解理條暢 一遍朗讀 座上人 無不嘖嘖稱奇 雖村夫賈豎 亦可聽其辭 而解其意 於是乎西廂記 人皆知其爲絶世妙文也」 李家源, 「院堂譯本漢文原典併刊西廂記」(一志社, 1974) p. 6 <阮堂 金正喜 諺解本序>.

19) 「夫天有日月風雨 地有五穀草木 人有公卿農工 文有經史子集 潤民生日用 不可缺者……文之綺詞艶曲 雖無補於用 而天地間 不可少此一物也 余以西廂一書」

라고 하여 「西廂記」와 같은 패설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聖賢의 글이 아니라면 君子는 읽지 않는다. 이러한 稗官哀曲은 보는 것도 볼  
가한데 하물며 번역을 한단말인가 (이 글이 비록) 공교롭다면 공교롭지만, 따  
음을 음탕하게 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sup>20)</sup>

라는 친구의 질문은 바로 당시 士類들의 공식적 표면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바로 이러한 패설의 열렬한 독자였던 것이다.

「折花奇談」의 작자 石泉主人 역시 〈追序〉를 쓴 南華子와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西廂記」의 독자였을 것이고 단지 소극적인 독자로서, 또는 번역의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西廂記」와 포리를 이룰만하다는 작품을 창작하였던 것이다. 이는 秋史가 「西廂記」를 번역한 해보다 2년 전의 일이다.

작자가 패설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折花奇談」을 창작하게 된 데에는 작자 자신의 의욕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패설의 독자 또는 옹호자가 광범하게 존재하여 패설이 수용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 크게 고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자가 士類가 아닌 중인 역관의 부류였던 까닭에 인습적인 문학관에 대한 傾斜가 그만큼 약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折花奇談」은 굳이 공리성이나 교훈성을 강조하지 않고도 단순한 〈읽을거리〉라는데 존재가치를 부여받았고, 한문이라는 표현 수단 때문에 비록 제한된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작품의 짜임새나 문장의 절묘한 표현력을 높이 평가받았던 작품이다.

## 6. 內容 檢討

대부분의 고소설은 주인공을 중심으로하여 그 인물이 겪는 전생애의 사건을 다루고 그에 따라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折花奇談」은 하나의 연애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梗概에서 본 것처럼 필요한 최소한의 등장인물로 한정되어 있다. 그들의 역할도 매우 뚜렷하여 줄거리가 간결하게 짜여져 있다.

以作奇雲幻霧 · 以作名花異卉 不亦可乎(註) 18과 같음.

20) 「非聖賢書 君子不讀 稗官哀曲 見猶不可 況譯之乎 工則工矣 其於蕩心何」(註) 18과 같음.

즉, 閩閩家 李氏宅에서 식객생활을 하면서 方氏의 처 舜梅에게 접근하는 李生, 포악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舜梅, 兩人的 情事를 주선하는 酒店老嫗, 李生에게 戀心を 표했다가 거절당하자 李生·舜梅 양인의 만남을 좌절시키는 舜梅의 이모 干鸞 등이 「折花奇談」의 중요한 등장인물이다. 이 외에 사건의 진행에 따라 그때 그때의 사정 설명을 위해 등장하는 蒼頭(小奴), 舜德, 福蓮, 郭老등이 나타날 뿐이다.

또한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도 老嫗의 집을 중심으로 하는 한 마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아울러 사건이 발단되어 종결되는 시간도 李生이 舜梅를 처음 본 壬子년 春夏之月로부터 이듬해 사월 초파일 뒤 열흘 남짓한 어느날 李生이 舜梅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때까지 불과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古小說의 일반적 양태인 全生涯的 傳記的 성격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특정한 사건의 발단 - 전개 - 결말의 집약화가 이루어졌다. 이 점은 「折花奇談」에서 舜德, 郭老등 불필요한 인물에 의한 의미 없는 1회적인 사건이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사건 전개의 미숙성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물의 개성화, 사건의 단순화, 結構의 조직성을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折花奇談」은 지금까지의 고소설에서 한 걸음 발전하여 보다 근대문학에 접근한 소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남녀주인공이 모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점이다.

舜梅가 옷설을 여미며 대답했다. 남군께서 그리위하고 사모하며 잊지못함을 겁 또한 압니다. 비록 목식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찌 마음에 감동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나 남군께서는 부인이 있고 천점 또한 남편이 있습니다. 羅敷가<sup>21)</sup> 스스로를 깨끗이 한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음을 한스럽게 여깁니다<sup>22)</sup>

이처럼 舜梅는 자신과 李生이 결혼한 처지에 있는 입장임을 인식하면서도

21) 戰國時代 趙王之 家令인 王仁의 妻 羅敷가 발두령에서 뽕잎을 따는 것을 보고 趙王이 김탈코자 하였다. 이에 羅敷가 箏을 뜰으며 陌上桑之歌를 지어 자기에게는 남편이 있고 趙王에게는 婦人이 있음을 깨우치니 趙王이 단념하였다는 故事.

22) 「舜梅斂衽 對曰 郎君之眷戀不忘 妾亦知之 雖鐵腹木心 豈無感動乎心哉 然郎君自有婦 賤妾亦有夫 羅敷白靖之節 恨不相守」(제 11 장 후면).



침이 낭군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낭군께서 침을 사모하는 마음을 압니다.<sup>23)</sup>

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얼핏보아

梅女가 천성이 깨끗하여 몸은 비록 천하나 마음이 귀하여 그 뜻을 빼앗기 어렵다.<sup>24)</sup>

고 한 점과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그녀는

침이 비록 천류라고 해도 또한 인성이 있으니...<sup>25)</sup>

라고 자신도 人性을 가진 하나의 인간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舜梅는 한번 결혼하면 남편만을 섬겨야 한다는 당시의 윤리관으로는 실로 파격적이라 할만한 대담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李生을 만나기 위해 老嫗의 집을 찾거나, 또는 직접 李生의 晝寤를 찾아와 애정을 표한다. 그녀는 李生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도

마음으로 생각함이 절실해도 만나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낭군이 오히려 침 뱉고 욕하며 멀리할 것 같았습니다.<sup>26)</sup>

고 하여 남편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깨끗이 하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쉽게 李生을 만날 경우 李生이 자신을 경멸하고 멀리할까봐 염려한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학대를 피하여 일시적이거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이용한다. 이모의 감시를 피하고, 제삿날에 기회를 보아 집을 빠져 나온다. 즉 그녀에게는 李生이라는 새로운 사랑만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봉건적 절서인 烈女不更二夫의 윤리관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갈망은 현실적으로는 관철될 수 없는 것이었다.

梅가 베개 위에서 탄식하며 말했다. “침은 타고난 命이 기구하고 험하여 남편이 악질이니 명색은 부부이지만 情은 뜻·越과 같은 원수이며 말한다면 반드시 어긋나고 움직이면 매양 헐뜯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

23) 「以妾思郎君之心 亦知郎君戀妾之心也」(제 16 장 후면).

24) 「梅女之賦性淸潔 身賤心貴 不可奪志…」(제 8 장 전면).

25) 「妾雖賤流 亦有人性」(제 16 장 후면).

26) 「心以思切 未及見之 郎君猶且唾罵而遠之」(제 11 장 후면).

르고자 하나 廉防이 있고 守垣牆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른바 寸心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sup>27)</sup>

고 한다. 李生이

“너의 정 또한 매우 가금하구나 옛부터 才子·佳人이 그 행실을 고친 것올 다 적을 수 없다. 금으로 만든 집에서 데리고 살기는 바라지 말라. 내 마땅히 너를 초가집에서 데리고 살리라. 네 뜻은 어떤지 모르겠구나”<sup>28)</sup>

하자 梅는

情은 실로 잊지 못하며 義는 실로 저버리기 어렵습니다. 이 몸이 박명함을 또한 말할뿐입니다. 지하에서 남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이 첩의 바람입니다.<sup>29)</sup>

고 한다. 이처럼 舜梅는 원수와 같은 남편과 결별하고 싶어하지만 결국 남편에게서 돌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李生과 작별하게 된다. 이러한 舜梅의 갈등은 情(욕망)과 義(부부라는 제도)사이의 갈등인 것이다. 그녀는 ‘옛 사람(남편)을 버리고 새 사람(李生)을 따를’의향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은 후이나 소원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折花奇談」이 쓰여진 19세기 초반의 시대적 상황, 즉 봉건적 질서를 지키려는 守舊와 진보적 질서의 추구속에서 갈등이 팽배하여 사회의 세반 모순이 可視化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6세기 壬亂前을 지향한 英·正祖의 反動的 복고주의가 퇴색하고 20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 舜梅의 행위에 여실히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折花奇談」의 배경에는 작자의 숙명론적 인생관이 시종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舜梅의 銀珮가 우연히 李生의 손에 들어오자 그것을 인연이라 생각하고 舜梅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그녀와의 이별 역시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받아들이고

27) 「那梅於枕上 唏噓歎曰 妾賦命奇險 所天無良 名雖夫婦 情實吳越 豈必矛盾 動輒驚驚…棄舊從新 而廉防有 守垣牆有耳 眞所謂寸心之難馭也」(제 31 장 후면~제 32 장 전면).

28) 「爾之情曲 亦甚可矜 自古才子佳人之改適其行者 不可殫記 金屋之貯 不敢望也 吾堂貯汝以茅屋 未知汝意如何」(제 32 장 전면).

29) 「情實不忘 義固難負 此生薄命 亦云已矣 重泉之不得遂餘願 則妾之望也」(제 32 장 전면).

거울은 언제 다시 붙으며 絃은 언제 다시 이어지는가. 오호라 호사다마로구나.<sup>30)</sup>

하고 통탄하며 체념한다. 또한 작자는 〈自序〉에서

정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일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알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고 끝낼 수 없는 것이 있으며, 헤아릴 수 없고 고구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때문에 정은 인연에서 나오며 일은 계기에서 생긴다. 인연이 없다면 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계기가 없다면 일은 무엇을 따라 생기는가. 계기에 정조가 있고 나서 일이 만들어지며 인연에 싹이 있고 나서 정이 동한다. 계기에서 동하는 것과 인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또한 사람이 태어남을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sup>31)</sup>

고 하였다. 즉 그는 남녀의 만남,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이 모두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숙명론을 작품의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다.

## 7.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한문소설 『折花奇談』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3회의 장회소설인 이 작품은 매회 첫머리에 그 회의 내용을 요약, 褒貶한 南華子의 평이 본문에 앞서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의 창작연대는 1809년이며 작자는 서울 薰陶坊에 살았던 石泉主人 李某였다. 또한 〈序〉를 쓴 작자의 친구이며 評者인 南華散人도 작품에 운색을 가하는 등 창작에 깊이 간여한 것 같다. 이들은 譯官層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非士類的 신분속성에 일정하게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며, 고소설 중에서는 특이하게 기혼남녀의 파격적 애정관계를 다루었고, 그 애뜻한 심리상태를 절실하게 묘사하였다.

『折花奇談』의 작자는 또한 패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기왕의 패설

30) 「鏡何時而再合 絃何日而復續 嗚呼 好事多魔」(제 36 장 전편).

31) 「情有不可知者 事有不可測者 不可知 而有不可忘不可終者 不可測 而有不可究不可盡者 是故 情出乎緣 事出乎機 無緣 情何由生 無機 事何從起乎 機有微而後事作 緣有萌而後情動 其動於機 作於緣者 亦莫非人之所由生也」(제 2 장 후면~제 3 장 전면)

작법원칙을 극복하고 당시대의 구체적 경험을 소재로 함으로써 傳奇的인 성격을 탈피하였다. 또한 「折花奇談」은 문장의 절묘함을 높이 평가한 그 동호인들의 취향으로 인해 보다 문예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인간의 욕구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근대문학에 보다 가까워진 작품이라 하겠다.

그 외에 「折花奇談」에는 당시 점증되어 가는 화폐의 효용성이 반영되어 있다. 즉 사건의 발단이 되는 銀珮物의 典當이나, 보수로 화폐를 요구하는 것 등은 이 작품 성립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작품 내용의 근대적 성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